

제 9 권 묵상

1. 매우 유익한 훈련

출처: *A very profitable exercise*, From a sermon delivered at New Park Street Chapel, Southwark, on a Thursday evening in the summer of 1858.

저자: 찰스 스펔전 (1834-1892) : 영향력 있던 영국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비돈 출생
역자: 조상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시104:34)

나는 독자들 중 절반 이상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를까봐 두렵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당신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묵상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묵상에 마음을 쏟지 않고 있다.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 중에 누가 묵상에 대해 알겠는가? 당신은 아침에 겨우 시간에 맞춰 일어나 합승마차의 자리에 몸을 싣는다. 그 다음 사무실로 서둘러 가서 주문서를 찾는다. 그곳에서 바쁠 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한가할 때는 하루 종일 잡담을 하면서 보낸다. 밤에는 과로로 너무 지쳐서 머리를 식히려 집으로 향한다. 한 주 두 주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또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끝나지 않는 고된 일은 여전히 당신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 당신은 묵상을 위한 시간이 따로 없다. 만일 영원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 하루 30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고 하면, 당신은 그것은 확실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이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현명한 것이다. 하지만 아마 하루 30분에 백 파운드를 벌수 있다고 하면, 당신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재정적인 이익을 추산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동일하게 만일 당신이 묵상이 주는 수많은 유익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묵상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묵상은 당신의 영혼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다. 묵상은 극히 유익하고 훌륭한 일이다. 묵상은 시간을 낭비하기는커녕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묵상하는 사람을 절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마라. 반대로 그 사람은 훌륭한 일들을 하기 위해 최고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가장 많은 책을 읽는 최고의 학생은 아니지만, 그 책들을 가장 많이 묵상한다. 그 사람은 가장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은 신학을 배우지는 않지만, 자신이 들은 것을 가장 독실하게 묵상한다. 그 사람은 장황한 책들을 연달아 소화해내는 매우 심오한 학자는 아니지만, 조금씩, 한 줄 한 줄 교훈을 읽으면서 자신이 읽은 것을 소화하고, 묵상을 통해 각 교훈을 마음에 새긴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 이해하고, 그 다음은 그 의미를 자신의 영혼으로 받아들인다. 이처럼 묵상은 매우 뛰어난 작업이다. 이제 간략하게 묵상의 용도에 대해 말하겠다.

먼저, 나는 묵상이 어느 정도 마음에 휴식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묵상은 영혼의 휴식이다. 사람은 꼭 필요한 휴식을 취할 때 그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보다 더 많은 힘을 내기 위해 자신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묵상은 영혼의 휴식이다. 누군가가 “오, 나는 반드시 쉬어야 해. 나는 수개월 동안 쉴 새 없이 열심히 힘들게 일해 왔어. 나는 하루의 쉼이 꼭 필요해. 나는 일도 하

지만 쉼도 필요하지.” 라고 말한다. 그렇다. 적절한 장소에서의 그러한 휴양은 바람직하다. 우리는 해롭지 않은 휴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조금씩 조용히 묵상하며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의무로부터 오는 피로와 분주함에 덜 시달리게 될 것이다. 묵상은 우리에게 생기를 복돋우는 휴식이다. 강제로 쉬어야 할 때까지 우리 자신을 숨 가쁘게 몰아가며 일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쉼의 시간을 간간히 넣음으로써 일 년 내내 힘을 얻어야 하고 부산한 무리들로부터 벗어나 어떤 주제이든 우리 마음 속에서 가장 고귀한 장소를 차지하기를 바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매일 작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 가지 자세의 변화가 몸의 피로를 완화시키는 것처럼, 한 가지 생각의 변화가 당신의 영혼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해질 무렵 조용한 방에 앉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밝은 별들을 바라보고 세어보아라. 아니면,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 잠깐 쉬며 이 세상 개미집 위에 있는 수많은 개미들처럼 거리 위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라. 만일 당신이 주위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를 세어보고 자신의 마음의 감정들을 고찰해보라. 때로는 하늘에 대해 사색에 잠겨보는 것도 좋다. 아니면, 만일 당신이 미래의 예언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신비로운 장을 펴서 그곳에 기록된 신성한 환상들을 연구해보아라. 당신이 이러한 신령하고 복잡한 내용들을 접하고 이러한 인상적인 상징들에 대해 묵상을 할수록, 당신은 공부를 통해 큰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설 것이다. 당신은 묵상이 당신의 마음의 휴식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묵상은 지식의 자원을 가장 훌륭한 용도로 바꾸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묵상은 포도즙을 짜는 기계와 비교될 수 있다. 우리가 자료를 읽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를 따서 모은다. 하지만 모은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짜서 와인을 얻듯이 우리는 우리가 모은 지식을 묵상을 통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매우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는 것이 거의 없을까? 그 이유는, 두꺼운 학문적인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거기서 얻은 지식을 그들의 뇌가 작동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머리속에 매우 혼란스럽게 그냥 쌓아 놓기 때문이다. 그들은 올바른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배운 지식들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대신에, 그저 썩어서 사라지게 내버려 둔다. 그들은 포도나무의 귀중한 열매로부터 달콤한 지식의 즙을 전혀 뽑아내지 못한다. 나는 약 30분간 책을 읽고 나면, 잠시 동안 걸으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책을 덮고 “자, 작가님, 당신이 말을 했으니, 이제 내가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의 묵상은 나로 하여금 내가 전에 알았던 것과 당신이 나에게 전달해준 신선한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당신이 말한 사실과 의견과 주장과 동일한 주제에 대한 나의 지식과 의견과 주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동물들은 먹이를 먹은 후에 낮게 앉아 되새김질을 한다. 그들은 먼저 풀을 뜯어 먹고 그 후에 소화를 시킨다. 마찬가지로 묵상은 영혼의 되새김질이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먹이고 유지하는 자양분을 얻게 된다.

당신은 들판이나 정원에서 꽃을 수집한 후 적절한 순서에 따라 그 꽃들을 정렬하고 끈으로 묶는다. 그러나 그 다발을 물에 넣지 않으면 퇴비가 되듯이, 우리는 모은 지식들을 정렬하

고 일련의 순서로 묶은 뒤 반드시 묵상의 물 속에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들은 쓸모없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바다에서 진주를 캐면, 그것과 함께 쓸모없는 많은 조개껍데기와 진흙이 함께 섞여온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지식들을 캔 후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것들을 분류해서 보존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만 보관해야 한다. 당신은 진주를 고집어내기 위해 조개의 입을 열어야 하고 고집어 낸 진주는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문질러 닦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책에서 얻은 지식을 묵상을 통해 문지르고 닦기 전에는 당신의 마음의 아름다운 목거리로 삼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발견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다. 묵상은 영혼의 휴식이듯이 동시에 영혼이 배우고 얻은 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수단이다.

또한, 묵상과 영혼의 관계는 레슬링 선수의 몸과 오일의 관계와 같다. 고대의 레슬링 선수들은 레슬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의 관절이 운동에 맞게 유연해지도록 항상 몸에 윤활유를 발라주었다. 자, 묵상은 어떤 상황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논쟁을 할 때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왜, 혼자 있을 때 묵상하는 자들이 이기는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쾌락을 찾아 돌아다니며 생각없이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있든 혼자 있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읽는 책을 쓰고 끊임없이 문학 작품을 제공하는 작가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레슬링 선수들이 오일로 자신을 꾸준히 적시면서 뼈가 유연하고 팔다리가 운동하기에 적합하도록 하듯, 묵상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영혼을 유연하게 유지한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인 운동으로서 묵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처럼 묵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묵상은 마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속적인 주제들과 자연 과학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영적인 것을 배우는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용하다. 가장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다(창24:63). 다윗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묵상하리)이다”(시 119:48)라고 고백한다. 바울은 친히 복음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필요한 중요한 것들에 대해 디모데에게 말할 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딤후4:13, 15)라고 말한다. 기독교인들에게 묵상은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묵상없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심지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한다. 묵상과 기도는 쌍둥이 자매이고, 둘 다 기독교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묵상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에서 반드시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형제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데 있어서 묵상만한 것은 없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태만하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충분히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품고 있는 목적을 놓치는가! 만일 당신이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들에 대해 묵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리가 주는 달콤함을 거의 알 수 없고, 혜택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별집을 놀러야 별집에서 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설교를 들으면서 힘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설교로부터 꿈을 고집

어내어 가장 달콤한 맛을 얻는 것은 그 설교 내용을 묵상한 이후이다.

나는 당신에게 묵상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떼어 놓으라고 말하고 싶다. 은혜로운 이 훈련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매일 일정 시간을 따로 떼기를 바란다. 만일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색을 위한 신성한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비천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경험을 통해 은혜의 교리를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묵상을 통해 이 세상의 것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이다. 나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이사야 26장 20절 말씀대로 “내 백성이 잠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 네 문을 닫고”와 시편 4장 4절 말씀대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의 충고를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와 소음이 다소 약해지고 우리가 더 차분한 생각을 하며, 엄숙한 마음의 침묵 속에서 단 번에 우리의 하늘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사소한 것들만 얻게 되고 위대한 것은 거의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위대한 마음은 무심코 듣는 소리에 의해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다. 위대한 영혼들은 그들을 떠받쳐줄 묵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당신은 강해지고자 하는가? 당신은 강대해지고자 하는가? 당신은 주님을 위해 용감하고 주의 뜻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가? 시편 작가 다윗을 따라 묵상하라. 이 일에 유념하라. 묵상은 매우 기쁘고 유익한 훈련이다.

~~~~~

성경으로부터 또는 복음 설교 중 전달된 진리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얻은 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자주 묵상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여겨야 할 것이다. - 존 오웬

## 2. 묵상이란 무엇인가?

출처: “A Christian on the Mount” in *Discourses on Important and Interesting Subjects*, Vol. 1, 199-201.

저자: 토마스 왓슨 (1620-1686): 영향력 있던 영국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비돈 출생

역자: 안선형

묵상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함으로 영혼이 요동하지 않고 잠잠한 상태” 라고 대답하겠다. 묵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1. 묵상은 영혼이 요동하지 않는 잠잠한 상태이다.** 신자가 묵상할 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세상일은 묵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마 14:23). 따라서 묵상을 할 때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한다. 이삭은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다(창 24:63). 이삭은 홀로 은밀한 곳으로 벗어나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많은 무리에게서 벗어나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눅 19:3-4).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허다한 세상일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잠잠히 묵상하기 위해서라면 나무 위라도 올라가야 한다. 그곳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세속 음악은 묵상할 때 좋게 만들거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희롱한다. 눈에 들어간 조그마한 티끌이 시야를 흐리게 하듯이, 티끌과 다름없는 세속적인 생각이 영혼의 눈인 마음에 들어오면 전심으로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묵상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예배하러 가면서 종들과 나귀를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처럼(창 22:5), 신자가 묵상의 장소로 나아갈 때는 세상 관심을 다 뒤로하고 홀로 남아있어야 비로소 천국을 거닐게 된다. 날개에 진흙이 덕지덕지한 새는 날아오를 수 없다. 묵상은 영혼의 날개인데 신자가 땅의 것으로 끈적끈적하게 엮여있다면, 이런 날개로는 하나님께 날아오를 수 없다.

성 베르나르는 예배당에 들어설 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니까 세상을 향한 내 모든 생각은 여기에 머물지어다.” 자, 스스로 말해보자. “지금 묵상을 시작할 거니까, 미덥지 않은 생각은 다 물러갈지어다. 얼씬거리지도 말지어다!” 묵상하려고 성산에 올라갈 때는 성산의 정상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두고 올라가야 한다. 영혼을 잠잠한 상태로 머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과 통하는 문을 닫고 빗장으로 잠그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묵상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생각이다.**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의미이다. 묵상은 나일의 개가 나일강 가에서 물을 살짝 핥고 달아나는 것처럼 잠깐 서둘러 몇 가지 종교적인 생각을 대충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묵상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에 마음을 고정하며 깊게 생각해야 한다. 육에 속한 신자들은 여기저기로 흘러 퍼져가는 수은처럼 이런저런 잡생각에 헤매기도 한다. 나뭇가지 사이를 여기저기 부산하게 옮겨 다니느라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는 새처럼 집중하지 못한다. 묵상에 적격한 인물로는 다윗이 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시 108:1). 묵상에는 반드시 어떤 대상을 향한 지속적인 생각이 있어야 한다. 집배원은 마을을 지나면서 신속하

게 편지를 배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가는 전체 밑그림과 그림의 기법을 결정하는 특이한 한 부분을 집중해서 바라본다. 균형과 비율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림자와 색상 등 모든 면을 고려한다. 육에 속해서 바쁘게 사는 육에 속한 신자는 마치 급하게 서두르며 지나가는 여행자와 같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신자는 화가의 관점에서 차별하게 경건한 일을 마음에 새긴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눅 2:19)

**3. 세 번째로, 묵상은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신자는 치료를 위해 온천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묵상에 잠겨야 한다. 묵상은 세속에 의해 죽은 영혼을 고쳐준다.

### 3. 묵상의 의무

출처: “Sermons upon Genesis 24:63” in *The Complete Works of Thomas Manton*, Vol. 17.

저자: 토마스 맨튼(1620-1677): 영국 장로교 목사, 영국 서머셋 로렌스-리디아트 출생

역자: 남규석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창 24:63)

나는 이 구절의 의도를 한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엄숙한 묵상 및 영적이고 거룩한 것들로 그들의 영혼을 훈련시키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익숙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의무인 묵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묵상의 훈련과 지식에 있어서 낮설다. 이 시대는 혼란과 행동의 시대이고, 우리 모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묵상의 의무에 관하여 알리는 것을 내 과업으로 삼고자 한다.

**[1] 묵상은 성경의 증거에 의해 나타난 신앙의 의무이자 훈련이다.** 우리들은 명령을 받았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수 1:8). 묵상은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 1:2). 묵상은 이삭(본문에서), 모세, 다윗과 같이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도들의 예와 모범으로 우리에게 권해진다. 묵상은 성경의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권해지며 자연과 이성의 빛에 의해서도 그렇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순전하고,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에 의해서 드러지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생각은 영혼의 가장 오래되고 귀한 소산이고, 엄숙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마땅하다. 묵상은 복음 안에서도 요구된다. 나는 구약에서 주로 요구된 것은 율법에 대한 묵상임을 발견한다.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대상으로 인도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7-19). 이것이 성도들의 연구이다. 나는 이러한 묵상이 구약 시대에 더 요구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주 무례하고 육적이었기에 더 강력한 영적인 의무가 필요했다. 하지만 묵상은 지금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과 잘 맞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알맞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순결하고 이성적인 대화이다.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성의 꽃 봉우리이다.

**[2] 묵상은 임의적인 의무가 아니다 [묵상의 중요성].** 묵상은 지키거나 생략할 수 있는 선택적인 도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모든 은혜가 시들어 사라져 버리고 마는 필수적인 의무이다. 다윗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

망하였으리이다” (시 119:92)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은 약속들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에 의해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말라서 굶어죽게 된다. 생각은, 믿음을 준비하고 양식을 가져와서 약속의 위로로 그것을 새롭게 하는 영혼의 요리사이다. 우리들이 묵상에 의해 우리 소망과 특권을 뚜렷하게 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소망은 낮고 가득 찬 기대도 없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 13:17).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생각의 크기만큼 크다. 우리의 기업의 부유함에 보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보기 위해 우리의 눈을 크게 뜨는 것은 매우 큰 유익이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8-19). 생각이 메마른 사람들은 대개 소망이 빈곤하다.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본 적이 없기에 그들 마음은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확실히, 소망은 묵상의 산에서 가장 풍성해진다. 사랑을 위해서, 꾸준한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를 붙들지 않으면, 생기 넘치는 애정이 흘러나올 수 없다. 애정은 이해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사랑은 변함없고 신중한 생각들에 의해 항상 더 깊어진다. 묵상의 의무에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중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의 충만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열망이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의 마음은 아주 좁고 하나님에 대하여 심각하게 가난하다. 따라서 묵상은 필수적인 의무이다.

#### 4. 묵상의 본질

출처: *Prima, Media, et Ultima, or The First, Middle, and Last Things*, 215-216

저자: 이삭 암브로스(1604~1664): 영국성공회교도이자 장로교 목사, 영연방 잉글랜드 랭커셔 옴스커크에서 출생

역자: 조상철

묵상은 우리의 육체와 세상과 마귀에 대항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늘의 왕국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면서도 진심 어리게 사색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묵상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유익한 것으로 이끌어 갈 때까지 마음속에 그 문제를 품고 꾸준히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묵상에는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것과 신중하고 계획되고 엄숙한 것이 있다

1. 갑작스럽고, 우발적이고 외적인 묵상은 하나님께서 섭리에 의해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감각에 나타내주시는 그러한 외적인 것들로부터 발생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8:3-4). 다윗의 이 묵상은 우발적인 것이다.
2. 신중하고, 계획되고 엄숙한 묵상은 보다 더 철저히 이 훈련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난 후 가장 필요한 주제, 시간, 그리고 장소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이 묵상은 두 배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숨겨진 진리를 알아내기 위한 지식의 문제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불을 붙이기 위한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 중 전자는 학교와 목사들에게 맡겨 둘 것이고 후자는 기독교인들이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너무 어렵다며 거절하지 않고 널리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를 살펴볼 것이다.

**묵상의 조건들:** 묵상의 조건은 시간과 장소이다. 이 두 가지에 나는 (비록 조건이라도 부를 수는 없지만) 묵상 주제를 더하고 싶은데, 이는 묵상을 할 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1. 시간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규정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시고, 서로 다른 취향의 사람들이 저마다 선호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차분한 시간을 갖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밤 시간에 지혜를 배우기를 바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삭처럼 해가 저물 때에 묵상하기를 좋아한다(창24:63). 시간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실행 방법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각자 묵상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2. 장소에 대해: 우리는 묵상, 특히 계획된 혼자만의 묵상에 대해서는 홀로 있는 한적한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은 산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다윗은 그의 침상에서, 다니엘은 그의 집에서, 그리고 이삭은 들에서 홀로 묵상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버나드가 말하길,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는 수줍음이 많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묵상하고 있는 그의 신부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으신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 되신 주님은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아7:11-12)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반드시 외적이든 내적이든 세상적인 교류를 끊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격리시키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있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세상은 묵상의 장애물이다.

3. 묵상의 주제에 대해: 그것은 반드시 신성하고 영적인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죄를 묵상하다가 아주 조용히 지옥에 가는 것을 연구하는데, 이는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다른 이들은 천체의 움직임, 바다의 썰물과 밀물의 이유, 땅에서 자라는 식물과 약초의 종류와 생물들,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특징과 움직임을 연구하며 생각하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의 사악함, 자신의 죄에 대한 위험, 그들의 불완전함, 그들을 속죄하신 구세주, 그 구세주가 그들에게 베풀어준 천국에 대해선 마치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무시해버린다. 우리의 묵상 주제는 반드시 신성한 것이어야 한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시63:6, 77:12).

~~~~~

묵상이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영적인 것들에 주목하도록 하는 진지한 이해의 훈련이다. - 윌리엄 베이츠

5. 일상의 묵상

출처: “*The Whole Works of the Rev. William Bates*”, ed. W. Farmer, Vol.3, 117-120.

저자: 윌리엄 베이츠(1628-1699): 영국 장로교인. 영국 런던 출생

역자: 오병재

일상의 묵상(일례로 자연을 관찰하는 것)은 모든 일상을 보고 관찰하는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영혼에 유익한 것들을 걸러내는 활동이다. 이것은 모든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영적인 화학작용과도 같다. 우리의 축복의 구원자는 일상의 묵상의 가장 분명한 본보기 이셨다. 그분은 자연의 사물들로부터 영적인 의미를 고집어 내셨다. 복음서는 일상의 묵상과 관련한 비유들로 가득하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한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한다. 모든 물줄기는 우리를 샘으로 인도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단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다리이다. 필자는 일상의 묵상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많이 언급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1)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는 것이고, (2) 자기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이며 (3) 창조를 무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다양한 일상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을 말하고 있다.

(1) 그는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는 것이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을 인간의 몸에 넣어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피조물이 될 수 있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묵상하기에 좋게 만드셨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에 주어졌다. 욥기 38장 7절을 보라. 주님께서 창조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다.” 새들이 날이 밝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창조의 아침에 천사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각하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기대하신다. 우리의 오감은 외부의 사물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여러 문물이다. 영혼은 그것들을 인식한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열매 맺는 나무들을 지으시고 잔치를 베푸신 후 사람을 손님으로 초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궁궐을 지으시고 그곳에 머물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창조주께 영광을 올려드리 는 것 외에 다른 존재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별들로, 땅을 꽃들로 꾸미신 후에 그 모든 것에 대해 주께 찬양드릴 사람을 지으셨다. 첫 번째 안식일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다. 즉, 사람은 세상의 창조에 대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2)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피조물을 사용하면서 그것들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은 피조물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의 최고의 특권을 자신에게서 빼앗는 것이다. 피조물은 그것을 지으신 분의 무한한 위엄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다. 누가 실제 음식보다 그림의 떡으로 만족하겠는가? 당신은 피조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만족하겠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피조물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주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그 사람은 창조를 무시하는 것이다.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다. 태양에서 돌맹이에 이르기까지, 백향목에서 제비꽃까지, 모든 피조물은 우리에게 소리 내어 하나님에 대해 뭔가를 가르쳐준다. 이 모든 세계는 사람을 위한 학교와도 같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한다. 자, 만약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묵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창조를 무시하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음식이 잘 맞춰진 악기이고, 사람은 그것으로 음악을 만든다. 만약 우리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영혼이 일상의 묵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상고해 보겠다.

1. 이 묵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킨다. 사람들이 자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보다 사람의 예술에 더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작품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화가나 조각가 밑에 둔다. 찬양과 경배는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될 때 흘러나온다. 이제 당신이 창조의 책을 읽을 때 당신은 창조주를 찬양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눈을 들어 하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리 위로 풍성한 덮개를 펼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당신의 눈을 아래로 향하여 지구의 광대함을 생각할 때, (또한 그 지구가 깃털도 지지할 수 없는 공중에 걸려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이 바다에 광대한 물이 모여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또한 성난 그 물이 가장 연약한 모래에 의해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의 권능을 경배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배우지 않겠는가! 이처럼 묵상을 통해 피조물과 대화하는 사람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로 다 표현 못할 그분의 선하심과 무한한 권능을 경배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2. 그 묵상은 영혼에게 찬양뿐만 아니라 감사도 하게 한다. 감사와 찬양은 다르다. 찬양하는 것은 그 가치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유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이제 이 위대한 세상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졌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혜택보다 사람들의 작은 예의에 더 감사하는 것은 주의 혜택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3. 창조에 대한 이러한 일상의 묵상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유로 믿음을 촉구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 . .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 6:28-29; 10:29-31).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가족들의 위대한 주인이시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만약 나의 하나님께서 나보다 열등한 이것들을 돌보신다면, 나를 훨씬 더 많이 돌보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장이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4. 이러한 일상의 묵상은 우리 삶의 가장 악한 부분을 치유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악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헛된 생각들이다. 자연 안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없고 비어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작은 그릇조차 액체나 공기로 채워져 있다. 자, 당신이 그 그릇에 더 많은 물을 부으면 더 많은 공기가 빠져 나간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혼에 이러한 일상의 묵상을 채워 넣는다면, 그것은 헛되고 악한 생각들을 밀어낼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항상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는 마치 태양 빛과 같다. 태양 빛은 땅에 달지만 태양 그 자체는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 이 세상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 역시 이와 같다.

5. 이러한 일상의 묵상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복돋아 줄 것이다. 당신이 항상 주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당신은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주인은 그가 먹이고 유지하는 종의 섬김을 바란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항상 값없는 은혜에 의해 지탱되고 있고 또한 주어진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공휼에 의한 것이고, 나아가 모든 만물이 영원한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더욱 주께 순종하고자 할 것이다.

태양은 언제나 실수나 착오 없이 궤도를 돌고 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본성을 거스를 때 모순이 될 것이다. 이같은 묵상은 당신의 순종을 복돋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일상의 묵상은 다음과 같은 유익을 준다. 인간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지음 받은 대로 쓰임 받는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빛나는 모든 만물의 선행의 광채는 다시 그분을 반영하여준다.

~~~~~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영적 성장 및 모든 은혜의 수단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다. 묵상이 없이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실천적인 경건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것을 묵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상을 명하셨다.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은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한다. 묵상은 결코 한 개인에게만 요구된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신 32:46).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잠 4:26).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 1:7).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눅 9:44). 이렇게 되려면 주의 말씀을 자주 되새겨야 한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 묵상은 이삭(창 24:62), 다윗(시 119), 우리 주님의 모친(눅 1:19, 51) 등. 믿음의 선조들의 실천과 본을 통해 우리에게 권하여지는 거룩한 예술이며 습관이다. 하지만 묵상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큰 도움이며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 묵상을 게을리 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핑계는 다음과 같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내 삶은 너무 많은 의무들과 걱정들로

가득합니다. 아, 조용히 묵상할 그런 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간의 힘만으로 살고 있는 것이며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감독이 아니시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 만일 당신의 ‘짐’이 무겁다면 이는 스스로 진 짐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영원한 유익을 방치할 정도로 당신의 영혼의 필요를 제쳐놓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원하지 않으신다. - A. W. 핑크.

## 6. 진지하고 신중한 묵상

출처: “The Christian Man’s Calling” in *The Works of George Swinnock*, Vol. 2, 424-429.

저자: 조지 스윈록 (1627-1673): 청교도 목사로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교육을 받았다. 영국 켄트 매드스톤에서 출생.

역자: 스테반 황

진지한 묵상은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새롭게 될 때까지 어떤 거룩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 악한 것에 대항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진지한 묵상에 대해 다섯 가지를 언급하겠다.

**1. 묵상은 생각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묵상은 졸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일 이해가 없으면 감정은 생겨날 수 없다. 그러므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묵상의 주된 작업이다. 이를 빠뜨리면 감정의 요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열이 태양에 의해 이 땅에 전달되기에 밤과 같은 어둠 속에서는 습기와 찬 기운이 있다. 빛을 전달하는 수레는 늘 따스함과 밝은 광선도 함께 가져온다.

**2. 묵상은 생각을 ‘진지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급하게 먹은 것은 신체의 영양분이 되기보다 소화 불량이다. 너무 급하게 머리에 들어온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먹은 것이 잘 소화되려면 먹은 음식이 소화될 때까지 그 음식을 잠시 담아두는 기능이 신체 내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먹은 음식으로부터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진지한 묵상은 갑작스런 묵상과 차이가 난다. 갑작스런 묵상은 가끔 갑자기 하는 묵상으로서, 문을 두드리기에 문을 열어주니 인사만 하고 곧바로 떠나버리는 사람처럼 곧바로 사라진다. 그러나 진지한 묵상은 한번 들어오면 한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한다. 갑작스런 묵상은 마치 목이 너무 마른 겁먹은 강아지가 나일 강 기슭에서 허만 잠깐 적신 후 도망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신중한 묵상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신부가 주의 품 안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오래 남게 된다.

진지한 묵상은 어떤 내용에 생각과 마음을 쏟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 게으른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중요한 일들은 아무렇게나 급히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느슨하고 안일한 자세와 생각은 진지한 묵상에 방해만 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 마음을 주께 집중해야 한다. 슬쩍 지나치는 것만으로는 별 유익이 없다. 진홍색을 내려면 한번의 염색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 번 염료 통에 담갔다가 꺼내어야 한다. 푸른 나무를 불에 타게 하려면 더 많은 풀무가 필요하다.

**3. 진지한 묵상은 어떤 거룩한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좋은 고기와 음료가 맑은 피를 내는 것처럼 훌륭한 주제들은 좋은 생각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풍성한 주제들이 있다. 즉,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 그리스도의 신분과 직분들, 사람의 네 가지 상태, 세상의 헛됨, 죄의 죄악됨, 영광의 구주의 사랑과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등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 중 하나씩 택하여 특별한 주제로 삼아 묵상해야 한다(출 15:11; 시

1:1; 119:148; 잠 6:22; 딤편 4:13).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주제를 취할 경우 개가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며 이놈 쫓다가 저 놈을 쫓으면서 둘 다 놓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집중해서 묵상하라. 그 주제를 더 깊게 다루기 위해 그 주제의 원인과 특징과 결과를 살펴보고 다른 증거들과 대조하며 비교하라. 그러면 원가를 새롭게 배우게 되면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피는 것은 마치 여러 창문을 열어놓고 풍성한 빛이 방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방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면서 감정도 따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시계의 각 부품들이 해체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각 부품이 제 자리에 있게 될 때 자기 기능을 하게 되면서 참으로 요긴하고 귀한 부품이 된다.

**4. 진지한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 소리는 메아리를 치고 도장은 인을 남기듯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생각에 응답한다. 만일 우리의 묵상이 우리 마음을 더 낮게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묵상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마치 강물 위에 떠다니는 가벼운 물질처럼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그저 뿌리 없이 떠난다면 그러한 묵상은 전혀 유익이 없다. 하지만 무거운 물질이 물 아래로 내려가 바닥에 자국을 남기듯이 우리의 묵상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 그곳에 뿌리를 내린다면 이는 묵상의 목적을 완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묵상하는 목적은 머리를 비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는다” (참조, 시 39:3). 우리는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에 불을 지핀다. 마음에 생각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치 불로 음식을 익혀 먹은 후 소화시켜서 좋은 영양분을 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죄의 죄악 됨을 묵상할 때 죄의 특성을 생각하게 된다.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법과 영광을 대적한다. 죄는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과 평강에 해를 끼친다. 또한 결과적으로 장래의 영광과 복락을 잃게 만든다. 죄의 아버지인 사악한 사탄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짝하여 더욱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다. 죄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킴으로써 본성적으로나 관계에 있어서나 영적인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심지어 죄는 기도와 말씀 듣는 것과 찬양마저 혐오스러운 것이 되도록 한다. 죄는 얼마나 기만으로 가득한지 먹을 것을 주는 척하지만 결국 살해한다.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 위에 저주가 임하였고 이에 모든 피조물은 허무에 굴복하며 고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머문 사실은 사람들의 죽음의 사실로 분명하며, 이에 영적인 심판 및 영원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죄 때문에 마음을 찢을 것이며 또한 동시에 죄를 향한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죄를 진지하게 묵상한 그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아, 지극히 높으신 주께 그러한 반역을 마음속에 품는 나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내 가슴에 그러한 뱀을 안고 있었으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얼마나 말로 다 표현 못할 슬픔인가! 죄에 대해 아무리 미워한들 다할 수 있으랴! 나는 죄를 그렇게 사랑하여 왔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왔으니 앞으로 얼마나 주의해야 하며 얼마나 내 자신을 혐오해야 하는가! 오, 저질러진 죄에 대해 슬피 울 수 있을

까? 죄를 막기 위해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가! 죄 사함을 위해, 그리고 죄의 권능을 대항하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큰 죄인을 향해 그토록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빛을 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악을 담당하신 것에 대해 나는 얼마나 무한한 빛을 진 것인가! 주께서 나의 본성을 취하신 것은 얼마나 무한한 겸손이신가! 오, 심지어 나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도대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가! 그러한 사랑에 어떤 삶으로 보답할꼬! 그러한 은혜와 선하심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마땅할꼬!”

이러한 묵상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는 것은 마치 저린 발에 기름을 발라 문질러 정상적인 감각으로 회복시키는 것과 같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한 후 자신의 생각에 적용하였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 8:3-4).

**5. 어떤 거룩한 주제를 심각하게 묵상할 때 우리는 악을 대항하고 선을 추구하려는 각오를 단단히 하게 된다.** 신자는 선한 생각을 하려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그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고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전쟁 작전 회의 및 국가 회의를 마친 후 그 회의의 결정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회의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국가는 현명한 판단을 신실하게 수행할 때 번영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현인들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장로의 머리가 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젊은이의 손이 있는 성은 안전하다고 말하였다. 생각이 없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다. 행동이 없는 생각은 아무런 열매가 없고 허무하다. 묵상은 라헬처럼 아름답지만 그것이 실천되어야 레아처럼 열매를 맺는다. 율법에 따라 부정한 짐승은 새김질을 못하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경우이다. 어거스틴은 “새김질은 묵상을 의미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 거룩한 삶이 없는 묵상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독자들이여, 거룩의 아름다움과 뛰어남을 묵상한 적이 있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순수한 속성과 거룩한 명령에 부합하는 거룩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함의 주된 요인이며 성경은 수단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신성한 속성이고 빛이며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통과 은혜와 영광과 나라는 거룩의 열매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거룩한 당신은 얼마나 사랑스럽겠는가! 하나님의 귀는 거룩한 당신의 기도를 향하여 있다. 당신에게는 용서와 평화와 기쁨과 양자됨과 은혜 안에서의 성장과 견인이 보장되어 있다. 차고 넘치는 영원한 영광이 당신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묵상으로 당신의 마음이 사로잡힌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할지라도 이러한 보석을 바라며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제 다짐할 것이다. “그래, 늘 깨어 있으리라. 죄에 대해 슬피 울고, 거룩을 위해 열심히 자주 말씀을 듣고 기도하리라. 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며 주께서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실 때까지 결코 주를 떠나지 않으리라.”

자, 성전을 짓기로 작정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도 이제 당신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대상 17:2). 또한 하

나눔께서 모세에게 유대인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도 전하고 싶다.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신 5:28-29). 선한 목적을 마음에 품는 것은 귀하다. 하지만 품은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옳지 않다. 마땅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선한 의도는 단지 헛된 생각일 뿐이다. 실천이 없으면, 총알이 장전되지 않은 소총처럼, 소리는 요란하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다. 참으로 당신의 의도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로는 그 의도에 합당한 행동 외에 더 나은 것이 없다.

다윗은 이 점에서 훌륭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 119:59-60). 다윗은 주의 계명을 심각하게 생각했으며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이것이 그의 거룩한 태도였다. 그의 거룩한 삶의 태도는 다음 고백에서 나타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였도다” (시 119:15).

우리가 모세처럼 묵상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모세처럼 더욱 거룩하여진 성품과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묵상은 헛되다. 반면에, 뛰어난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묵상에 지혜와 공의와 거룩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완벽한 행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묵상에 대해 다섯 가지를 상고해 보았다. 처음 세 가지는 독자들을 돕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말한 것인데 사실은 하나로써 생각과 관련된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적용과 결단이다. 생각은 음식을 제공하고 적용은 그것을 먹으며 결단은 그것을 소화하여 힘을 얻는다. 생각은 천을 뜨고, 적용은 옷을 만들고, 결단은 그 옷을 입는다. 생각은 바른 판단을 하게하고 적용은 마음을 향하게 하며 결단은 삶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러한 신중한 묵상을 하는 것은 특별한 묵상이기에 쉽지는 않지만 참으로 소중하다. 신중한 묵상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맛본 사람들은 이러한 묵상이 수고스럽지만 그 보상은 대단히 크다고 고백한다. 멧돌을 처음 갈 때는 힘들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매우 쉬어지면서 훌륭한 가루를 낸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한 묵상에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고 또한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훈련을 하다보면 쉬워지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

규칙적이고 엄격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묵상하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다. 그들은 천국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과 모순된다. 이 땅에서 성경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며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 존 오웬

7. 묵상을 게을리 하는 것의 위험

출처: *The Art of Divine Meditation*

저자: 애드먼드 칼라미(1600-1666): 영국 청교도 교회 지도자이며 신학자, 영국 런던 성 토마스 아포스톨에서 출생

역자: 이충원

필자는 묵상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 생기는 비참한 피해와 손해를 독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필자는 모든 죄의 원인이 바로 이 의무를 실천하는데 게으른 것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할 것이다.

1. 사람들이 죄악 중에서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들의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완고해지는 이유는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렘8:6).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해 숙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다음 구절처럼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돌이켜” (왕상8:47). 그들은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망하게 되었고, 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천국을 잃었도다. 만일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실패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악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 만일 당신이 죄 안에 있는 악함을 상고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당신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쓰라린 것인지 심각하게 살펴본다면, 당신은 감히 그토록 기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경솔하고, 부주의하며, 완고하게 죄악 속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죄의 사악함에 대한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경건한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에 차려진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을 직접 먹어야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교는 음식과 비슷하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잘 소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은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이처럼 설교 역시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묵상함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을 준다. 당신이 듣는 것에 대해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유익을 준다. 깊이 묵상되고 잘 소화된 설교 한 편이 아무런 묵상 없이 듣는 스무 편의 설교보다 낫다. 즉, 묵상은 당신이 듣는 모든 설교를 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음식을 먹든 곧바로 토해버리는 병을 앓고 있다. 이때, 고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이것은 많은 신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동일한 증상이다. 당신은 한 편의 설교를 듣고 귀가한다. 그러나 그 후에 들은 설교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자마자 토해버리는 것과 같다.

또 어떤 이들은 먹은 고기마다 그대로 내보내는 병을 앓고 있다. 그 고기는 몸 안에 전혀 머무르지 않으며 그들에게 절대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 이는 당신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다. 당신이 주일에 들은 설교를 주중에 그대로 내보낼까 두렵

다. 당신은 설교를 매주 듣기만 하지 묵상을 통해 그 설교가 마음 속에 뿌리내리도록 결코 노력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충분한 설교의 양식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있어서 메마르게 되는 이유이다.

또한, 설교는 마치 연고를 바른 반창고와 같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쳐서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인다고 하자. 만일 그 반창고가 상처 위에 잘 붙어있지 않다면 상처가 치료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가 반창고를 붙이자마자 떼어버린다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설교도 이와 같다. 당신이 설교를 들은 후 전혀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자마자 떼어내는 것과 같다. 필자는 많은 굶주린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거듭 들어도- 주일에 그들은 너덧 편의 설교를 들을지도 모르다- 지식과 은혜에 있어서 왜 그토록 연약한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들은 것에 대해 절대로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길가에 뿌려진 씨, 즉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자이며 마귀로부터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는 자라고 설명하신다(참조, 눅8:5). 당신은 농부가 길가에 씨를 떨어뜨렸을 때는 그가 그것을 쟁기로 일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수확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는 이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 당신은 절대로 그 씨를 묵상이라는 흙으로 덮어주지 않는다. 당신은 설교를 들었을 때, 그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들은 설교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다.

3.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런 달콤함도 맛보지 못하며, 그 약속이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의 약속들은 달콤한 영양제와 같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양제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면, 그는 절대로 그 달콤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 약의 달콤함을 맛보려면 그것을 씹어서 깨물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이 천국의 위로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것을 묵상으로 곱씹지 않는다면 결코 그 위로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으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달콤한 냄새를 내지 않는 향신료와 같다. 또한 문지르지 않으면 감미로운 향기를 맡을 수 없는 향수알(포맨더)과 같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으로써 문지르고 으깨고 곱씹지 않는다면, 복음의 약속 안에 있는 천국의 위로를 결코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신자들이 인생 길을 그토록 불안해하며 걷는 이유는 이 약속들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죄에 대한 끔찍한 경고들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경고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고들은 이들에게 지붕 위에 떨어지며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는 우박과도 같다. 우박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지만, 아무런 두려운 느낌을 주지 못한다. 왜 그런가? 이는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경고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지 않는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이 경고들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건만 우리는 상고하지 않는다. 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엄숙히 묵상하고, (죄의) 노예가 된 그의 영이 그 경고에 동의한다면, 그의 마음은 괴로울 것이다.

5.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목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이든, 가족적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총을 받았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큰 동기가 된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망각 속에 묻어버리고 그에 대한 감사함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목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1:2-3).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감사를 모르는 이유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난롯불과 같다. 어떤 사람이 난로를 지나치고 그 곁에 앉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따뜻해질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추워한다면 난로 곁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따뜻해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볍게 생각하면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목상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깊이 목상하지 않고, 진지하게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알리고자 하는 시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시106:6-7). 그들이 그토록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목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목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도서 7장 14절은 매우 귀중한 말씀이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고난의 시간은 목상의 시간이다. 우리가 곤고한 날에 상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 거룩하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상해야 한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의미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을지를 목상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징계의 손길을 목상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거의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나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서 회복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보아왔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고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목상의 부족으로 인하여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될 것이다(참조, 잠26:11, 뱀후2:22).

7.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에 대한 목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신비롭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비한 방법으로 세상 권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필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규례뿐만 아니라 특히 그분의 섭리를 목상하기를 요구하신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목상함으로 배울 수 있는 매우 귀한 교훈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 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절대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섭리들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

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사57:1). 우리가 의인의 죽음과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 깊이 숙고하거나 고찰하지 않기 때문이다.

8. 신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그토록 불신하며 당장 주저앉아 망할 것처럼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시 목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눅12:22-24,27). 당신이 백합과 까마귀에 대해 상고하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찰한다면, 어떠한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들이 비참한 상황 중에 그토록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유는 목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까마귀와 백합에 대해 상고하지 않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연구하지 않는다.

9. 오늘날 신앙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며,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는 이유는 목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7:1-3).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더 관대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타인을 비판하는데 그토록 성급하고 경솔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목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예배시간에 하나님께 분별없는 예물을 드리고, 성급하고 경솔하게 기도하며, 준비 없이 성찬에 급하게 덤벼드는 이유는 목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전5:1-2). 사람들은 왜 준비 없이 성례에 달려드는가? 설교와 기도와 거룩한 책무들에 대해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삶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 숙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의 확실성, 그리고 언제라도 죽임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묵상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신32:29). 사람들이 그들의 종말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종말에 대해 그토록 준비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다.

12.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성찬을 가볍게 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부적절한 상태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례의 모든 열매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가 부족하며, 성찬을 참여할 때 목상이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 즉, 목상 없는 준비는 있을 수 없다. 준비는 목상 자체를 내포한다.

★★

오, 영광의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구세주를 생각하라.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당신을 위해 베들레헴의 천한 마구간으로 오셔서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종의 모양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임이었다(빌 2:6-8). 고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랜 시간 목상하는데 익숙하였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오랜 기간 예수님의 상한 손과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목상하였다. 오,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의 보혈에 관한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할 소중한 책이다. - 찰스 스펄전

복음과 진리에 담긴 신령한 것을 마음으로 이해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간절히 그리고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직분과 은혜를 더 알고자 할 때 현재의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주를 따르며 그분을 알고자 할 것이다. 그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더 완벽하게 알기 위해 기도하며 목상할 것이다. - 존 길

8. 하나님 목상을 위한 도움

출처: *Spiritual-Mindedness*, abridgement R. J. K. Law (Edinburgh; Carlisle: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9), 120-131.

저자: 존 오웬(1616-1683): 영국 회중교회 목사, 저자, 신학자. 영국 옥스퍼드셔 스태드햄턴 출생

역자: 남규석

훈련된 목상이라 함은 어떤 선택된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고 훈련된 방법으로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목상의 목적은 사고한 주제에 대해서 선함 또는 악함을 느끼도록 심령을 일깨우는 것이다.

훈련된 목상은, 주요 목표가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있는 성경 공부와 구별된다. 그것은 또한 기도와도 다른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이다. 훈련된 목상의 목표는 사랑, 기쁨, 그리고 겸손과 같은 감각을 경험하도록 우리 심령을 깨우는 것이다.

훈련된 목상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생각을 갖는 것과는 다르다. 영적인 주제에 관하여 훈련되고 정돈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도 영적인 생각에는 익숙할 수 있다. 훈련된 목상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훈련된 목상에는 타고난 재능과 능력의 사용이 요구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연약함과 무지로 인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개발되지 못했기에, 훈련된 목상은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영적인 생각을 즐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된 목상은 필수적인 의무이며 우리의 영적인 사고들을 일깨워 활동하도록 하는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려 한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지는 어떤 은혜의 원리이든 간에, 큰 노력과 어려움 없이, 그것을 영적인 목상 또는 어떤 다른 영적 의무에 쉽게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기도와 성경읽기 같은 거룩한 의무들을 위해 매일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다.

모든 세속적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선택하라. 가장 최상의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으면서 아무 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또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는 시간을 드러서도 안 된다. 만일 우리가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또는 우리가 피로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할 때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사람들이 영적인 의무에 있어서 너무 차갑고 형식적이며 생명이 없는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그들은 그들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배우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탄하신 것이다(말 1:8). 자연법칙과 거룩한 의무 둘 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상의 통치자에게 드러도 부적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러

야 하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택하는 시간은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영혼의 힘이 가장 자유롭고 활동적일 때이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가장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라. 가능한 최상의 시간을 드리라.

영적인 생각을 위해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라. 먼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한 후에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라. 당신이 묵상하려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과 영적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그 때 당신은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인 문제들에 거룩하고 건강한 관점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들은 마치 야곱과 에서와 같다.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은 같은 자궁에서 서로 투쟁한다. 종종 육신의 생각인 에서가 먼저 나오고 잠시 동안 장자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고” (갈 4:30), 우리 마음은 영적인 것에 고정되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단지 의무감 때문에 하늘의 것을 묵상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의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또는 묵상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기 위해 묵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묵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주님에 대한 과거의 묵상이 즐거웠을 때, 심령이 영적인 것에 의해 흥분되었을 때, 그 때 우리 영혼은 같은 경험을 반복하기 위해 진실한 갈망으로 묵상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즐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당신의 묵상은 달콤해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영적인 생각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 때 진지하게 다음 조언을 받아들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으라. 당신 마음의 어두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에 더 많은 빛이 필요함을 고백하라. 거룩한 것들을 생각해야 할 때 당신의 방황하는 생각들이 멈춰지도록 당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만약 당신의 묵상이 오직 당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두움만을 느끼고 보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와 영적인 힘을 구하도록 부르짖게 한다면, 그 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계획한 적이 없는 좋은 일을 이룬 것이다. 히스기야 왕을 예로 들겠다. 그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그 자신의 연약함의 무게로 인하여 가라앉고 부서져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그의 기도가 재잘거림에 불과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히스기야는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사 38:14). 마찬가지로,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어두움에 억압받는 것을 느낄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 주님, 나는 억압받고 있으니 나를 구하소서.”

묵상을 위해 특정 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도움이 되며 좋다. 일부는 이미 언급을 했다. 묵상을 위한 주제는, 우리가 방금 겪은 경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경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생긴 어떤 것에서부터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의 가장 빈번한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격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에는, 당신이 거의 성취한 것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당신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꾸물거리지 말라. 당신이 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사 42:3).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소한 날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다(슥 4:10). 그리고 만약 묵상의 의무에 있어서 준비된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에서 받으시지 않는 것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묵상을 통해 단지 상한 마음과 희미한 기도만 남게 되어도 그는 많은 재능과 기술 가운데 풍성히 다 바친 자들보다 처지지 않는다. 우리가 당장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교만과 불신의 열매이다. 우리가 묵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우리 자신의 사악함과 무가치함을 새롭게 느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익을 얻은 자이다. 그러나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성실하게 이 의무를 지속하는 사람은, 편안하고 성공적으로 묵상할 수 있을 때까지, 날마다 더욱 영적인 일에 더욱 계몽되고 현명해지며 경험이 많아질 것이다.

9. 생명의 떡을 되새김질하기

출처: *Studies in the Scriptures*.

저자: 아더 핑크(1886-1952): 목사, 순회 성경 교사, 영국, 노팅햄 출생

역자: 신형건

성경의 명령, 권고, 훈계는 그리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이다. 성경을 읽을 때는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처럼 읽어야 한다. 내 삶의 방식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부딪히면 나는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언약과 가르침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내 앞의 점시에 놓여있는 음식의 일부가 내 입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은 씹는 일을 한다.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씹는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심각할 정도로 이 과정을 지나친다. 우리는 급하게 음식을 입에 넣는다. 그리고는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킨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먹는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소화 불량으로 고통 받는 주된 이유이다. 그들은 치아가 수행해야 할 작업을 위장이 대신하게 한다. 완전히 씹힌 소량의 음식은 많은 음식을 삼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할 것이며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같다. 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부분을 간과한다. 그들은 영적인 치아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 본 적이 없다. 생명의 빵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얻기 위해 씹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되새김은 음식과 관련되고 묵상은 읽는 것과 관련된다. 이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고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독자여!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천천히 기도하며 적절히 묵상하며 읽는다면 급하게 열 장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다.

묵상은 거의 잊혀진 행위이다. 우리는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은 수도 없이 읽은 성경 구절을 기억해 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설명된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 구절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았으며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눅 2:19).

시편 1 편의 "복된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묵상은 우리 마음 속에 성경 구절을 새겨 놓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묵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를 들겠다. 성경 안에서 가장 친숙한 구절 하나를 들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 23:4). 자, 나는 이 구절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각 단어 또는 표현을 따로 취한 후 질문을 한다.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 첫 번째 것은 그 구절의 시작 부분이다. 그것은 "내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다닐지라도"라고 말한 부분이다. 나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

해 본다. 그리고 묻는다. 왜 분명하지 않은 표현이 쓰였지? 언젠가 나도 음침한 골짜기로 걸도록 부름 받을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는 문득 고린도전서 15 장 51 절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 다 변화하리니"라는 복된 말씀을 기억한다. 그제서야 나는 왜 성령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셨는지 알게 된다.

그 다음 나는 이 구절에서 핵심 부분을 본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신자가 죽을 때 지나가는 곳이다. 나는 "왜 죽는 것이 골짜기를 걷는 것으로 비유되었을까?"라고 묻는다. "이 그림으로 전하려는 생각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되새기다 보면 곧 깨달음이 온다.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깨달을 것이다). 자, "골짜기"는 평화롭고, 풍요롭고, 아름다움이 있고 특히 평안한 여행을 나타낸다. "골짜기"는 오르기에 어렵고 위험한 "산"과 대조되는 말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죽음을 산에 오르는 것처럼 위험하고 힘든 길로 보지 않고 골짜기에서 즐거움 가운데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로 보는 것이다.

그 다음 나는 그 구절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각 단어 하나 하나를 주의 깊게 메모한다. 신자가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칠 무렵, 그는 죽음이 단순히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그는 두려움 가운데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걷고 있음을 유의하라. 그 다음, "내가 다닐지라도"를 관찰하라. 그는 "골짜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을 지나간다. 죽음은 신자가 죄와 슬픔의 장면에서 영광과 행복의 영역으로 지나가는 문일 뿐이다. 다음으로, 나는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묘사된 부분을 관찰한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자칫 틀린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각 단어를 하나하나 숙고해보자. 그러면 각 단어의 특별한 의미를 꼬집어낼 수 있다. "음침"이 무엇인가? 아, 이 단어는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가! 우리는 어렸을 때 '음침한 곳'을 지날 때 무서워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가까이 가보았다면 우리는 그곳에 우리를 해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사망의 골짜기에는 무서운 유령들이 많다고 생각했었는가! 자신의 불신에서 나온 형상들을 보고 얼마나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던가! 오, 믿음의 형제들이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삼키지 않도록 하라. 사망 안에는 당신이 두려워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음침"은 느낌일 뿐 실제로는 가장 무해하기 때문이다!

자, 마침내 신자는 아름다운 이 단어들의 축복을 충분히 깨닫게 되자 사망은 어렵고 오르기 위험한 산이 아닌 평온하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골짜기"라는 것을 발견한다. 이 골짜기에는 "음침" 외에 다른 두려울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기뻐 소리지른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뜻의 한 예이다. 되새김은 음식과 관련되고 묵상은 읽는 것과 관련된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 한 구절 가져다가 종이 한 장에 적어 놓고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라.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기억에 새기라. 이 구절을 두고 기도하고 그 구절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다음 각 단어를 별도로 상고하라. 구절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라.

당신이 시편 34 편 7 절을 묵상한다고 가정하자. "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라. 왜 "천사"인가? 그는 누구인가? "진 치고"의 동사가 완료 시제(진행)라는 것을 주목하라.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러"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를 경외하는 자" - 나도 그들 중 하나인가?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 무엇으로부터 건진다는 것인가? 그런 후에, "건지다"와 "구원"를 말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로부터 답을 찾으라.

섭취 - 이것은 받아서 입에 넣은 후 꼭꼭 씹어 최종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먹은 음식은 몸이 쓸 것을 공급한다. 내가 씹고 소화한 음식은 이제 내 시스템으로 흡수되어 혈액과 조직으로 바뀌어 건강과 힘을 공급한다. 이렇게 섭취된 음식은 내 발걸음의 활력, 내 팔의 힘, 내 얼굴의 윤기로 나타납니다. 이제 제대로 갖추어진 내 시스템은 내 몸을 공격하는 병균을 방어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영혼에 상응한다.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온 음식은 적절히 소화될 경우 새로운 속성을 튼튼히 할 것이다. 그것은 믿음을 키우고 나의 일상과 봉사에 필요한 힘을 공급할 것이다. 더욱이, 나를 유혹하는 세균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될 것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11).

그렇다면, 이제, 웅장한 목표가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어지는 것은 성경말씀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적용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의 원리와 규례는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말씀은 섭취되어야만 나의 길의 안내자와 나의 성김의 발전기가 될 수 있다.

★★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생각하며 더 생각하라. 그분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롬 10:6-8). 바울은 말한다. "만일 우리가 참된 신자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가까우며 우리 마음에 더욱 가깝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동안 알지 못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주의 영광 안에서 주와 친교를 나눌 수 있겠는가? - 존 오웬.

마음이 지식을 묵상할 때 입은 지혜를 말한다.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 특히 복음의 말씀 사역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그 안의 진리들을 묵상할 때 자신들도 신령한 것들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묵상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존 길

다른 모든 신앙의 본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묵상은 생명과 힘을 부여한

다. - 존 볼.

10. 묵상의 주제

출처: *The Christian Soldier, or Heaven Taken by Storm*

저자: 토마스 왓슨(1620-1686): 영국 비국교도 청교도 목사이자 저자, 영국의 요크셔에서 출생

역자: 박기철

묵상이란 신앙이 거주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 중심의 본분이다. 자세히 정의하자면, 묵상은 마음의 거룩한 활동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진리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함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묵상의 의무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묵상은 우리의 육신적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것들에 대해 묵상하기를 싫어한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딴청 없이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마음이 묵상하기를 얼마나 싫어하고 대항하는지! 그리고 묵상을 회피하려고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사탄은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사탄은 묵상의 원수이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이 생긴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묵상은 헌신을 가져온다. 또한 묵상은 우리 마음에 안정과 진지함을 가져다준다. 사탄은 우리 마음이 진지함을 갖지 못하도록 갖은 애를 쓰며 방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의무에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조용히 앉아 묵상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돕고자 나는 묵상할 주제들에 대해 말하려 한다.

1) 당신의 본성의 전적 부패함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라.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한때 우리 영혼이 지닌 본질적 성향이였다. 이로 인해 우리 안에는 죄라는 심연이 생기게 되었다. 이 죄의 심연 안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탄생하고 자라나게 된다. 베드로가 본 보자기 안에서 더러운 짐승들과 기는 것들이 나온 것처럼 말이다(행 10:12). 죄는 우리를 문둥병자처럼 만든다. 죄의 본성적 부패는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죄책을 가져왔고, 이 죄책은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본성적 부패에 대한 묵상은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수단이다.

2)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실 때 슬픔으로 인해 그의 영혼이 고통 당하셨다. 사실 이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이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사 53:5).

(1)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진지한 묵상은 회개를 가져온다.**

“우리가 찔렸던” 그를 바라볼 때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피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 흘리시고 치르신 그 죄값을 생각할 때 어찌 그 보혈이 귀하지 않

겠는가?

(2)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묵상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태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라면 그 누구를 사랑하라?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그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창 27:13).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가난한 죄인이 풍성한 복을 상속받게 되었다.

3) 천국을 향한 확신들을 묵상하라.

당신이 오늘밤 죽게 된다면 천국을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가?

(1) *당신은 죄에 대하여 확실히 깨달은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서 잃어버린 바 된 자신의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죄의 자각은 회심으로 가는 첫째 단계이다.

(2)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받았는가?*

“그가 제사장이 되어 그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슥 6:13). 정말로 당신은 제사장들이 종재를 위해 제단에 섰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의 보좌위에 그리스도께서 앉도록 기꺼이 그 자리를 드렸는가? 정말로 당신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기울었던 죄짓는 성향으로부터 단절되었는가? 당신은 상황이 좋은 나쁜 기꺼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십자가 상에서 죽었던 그 분만을 붙잡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인정하겠는가?

(3) *당신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당신은 온유와 자비와 겸손의 영을 갖게 되었는가? 성령께서는 당신을 변화시키는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그분의 거룩의 표시를 남기셨는가? 이런 것들은 천국에 대한 좋은 증거들이다. 이러한 영적 시금석들은 당신이 은혜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4) 세상이 주는 모든 안락함의 불확실함에 대한 묵상하라.

피조물이 주는 기쁨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간다. 장엄하고 찬란한 태양은 뜨고 지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변하기 쉽다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상의 덧없음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테네의 영광과 트로이의 장엄함은 어디로 갔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요일 2:17). 세상 영광은 항해하는 배처럼 신속히 사라질 것이다. 세상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건강한 자도 병 들고, 정든 친구도 죽게 되며, 재물은 날개 달린 것처럼 신속히 없어진다. 세상의 덧없음에 대한 진지한 묵상은 다음과 같은 유익을 준다.

(1)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도록 지켜준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안주하기 쉬운 존재들이다. 시편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시편 49:11). 우리는 우리의 기초가 든든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세상이 영원하길 꿈꾼다. 슬프도다!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덧없고 불확실한지 묵상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자주 세상에 속지 않을 텐데. 이런 묵상에 소홀히 하면 사람들은 크게 후회할 것이다. 그들이 꿀을 먹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실제로는 독약을 먹는 것이 아닌가?

(2)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의 불확실함에 대한 묵상은 우리의 감정을 지켜준다.*

왜 우리는 불확실한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것일까? 많은 이들이 재산을 불리는데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 재산이 유지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가령 도둑이 그 재산을 훔쳐가지 않을지라도 화재로 인해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다. 그들은 자녀를 위해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겠지만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설령 산다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재산은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

(3) *세상이 주는 불확실함에 대한 묵상은 우리가 더 확실한 것, 즉 은혜를 바라보게 한다.*

은혜는 영원의 꽃이다. 죽음은 은혜를 파괴하지 못한다. 오히려 은혜는 죽음의 땅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준다. 진실한 거룩함을 소유한 자는 천사의 영광보다 더 확실하며 그것은 하늘에 고정된 별의 영광과도 같다.

5)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심에 대해 묵상하라.

하나님의 화살집에 있는 모든 화살들은 죄를 겨누고 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소동을 불태웠고, 옛 시대를 홍수에 잠기게 했다. 죄는 지옥에 불을 지피는 부싯돌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사람의 양심에 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고통이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 진노를 모두 쏟아내시면 우리의 양심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시 78:38)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만든다. 죄안에는 달콤함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오직 쏘는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분노는 얼마나 두려운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까?” (시 90:11) 이 세상의 모든 불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서 그것은 단지 그림속의 허상과도 같다.

6)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묵상하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일2:25). ‘생명’이라는 단어는 달콤하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더해질 때 생명은 영원히 달콤해진다. 영생은 하나님을 마주보고 기뻐하는 데 있다.

(1)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다.*

이것은 이생의 육적인 생명과 대조된다. 이생에서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에는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한다” (계 7:16).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서는 배고픔이 채워지며, 더 이상 배고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복된 생명은 먹고 마시고 음악을 듣는 감각적인 기쁨 및 그로 인한 위로에 있지 않다.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안에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삼킨 바 될 때에만 무한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마치 해가 뜨면 별빛이 희미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 우리 영혼을 채우실 때 우리의 모든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2) *이것은 영광스런 생명이다.*

성도의 육체는 영광으로 덧입힐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다(빌 3:21). 보석함이 아름다운 자수로 수놓아진다면, 그 안에 있는 보석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의 영혼도 이 보석처럼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 날엔 모든 성도들이 눈처럼 흰 옷을 입고 자신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영광을 성도들 위에 두실 것이다. 영광이 그들 ‘밖’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나타날 것이다(롬 8:18). 그리고 이 영광의 생명은 영원이라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천사도 써보지 못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오 우리가 이것을 자주 묵상하자.

-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묵상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 힘쓰게 만들 것이다.*

아이는 면류관을 쓰기 전에 먼저 태어나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요 3:3-8).

-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묵상은 이 짧은 인생의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이다. 시편기자는 이를 두고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이라 하며(시 103:15)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라고 말한다(야 4:14). 옴은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땅과 바다와 하늘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고상하게 표현했다. 땅에서는 인생이 빠르게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고 했고, 바다에서는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인생은 나는 독수리와 같다고 했다(옴 9:25-26).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무덤으로 신속히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오래 살수록 죽음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우리가 나이 들어 시력이 다하고 귀가 먹게 되면 죽음은 코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늙어 힘이 없어 다리가 후들거릴 때 죽음은 우리가 사는 집의 대들보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처럼 유한한 세상에서 오직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 다가올 영원한 생명의 삶은 병도 없고 정해진 기간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되어 약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상으로 당신은 묵상을 위한 여섯 가지 귀한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 거룩한 묵상을 하는 이가 없으니 애통하도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간다. 그들은 세상 염려로 인해 자신을 위해 묵상할 시간도 갖지 않으며,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 질문하는 자도 없다. 우리는 앞선 시대의 성도들과 다르다. 다윗은 주의 법도들을 묵상했다(시 119:15). 이삭은 해질 무렵에 산책하며 묵상했다(창 24:63).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린다.

율법에 따르면 되새김하지 않는 짐승들은 부정하다. 그렇다면 거룩한 묵상으로 되새김하지 않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져야 한다. 피타고라스는 모든 사회적 활동을 그만두고 철학에 대한 사색을 위해 1년 동안 동굴에 들어가 지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한번이라도 하늘의 영광을 묵상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고 홀로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게으른 자들이여! 그러나 나는 애통한 나의 심정을 권면으로 바꾸고 싶다.

1) 묵상은 선포된 말씀을 유익하게 만들어준다.

묵상은 설교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다. 꿀벌이 꽃에서 꿀을 빨아들이듯, 묵상은 설교말씀에서 달콤한 진리를 빨아들인다. 묵상은 단순히 음식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 이처럼 묵상은 귀로 들은 가장 탁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한다. 그러나 묵상하지 않으면 포도주가 그 체를 통해 쏟아지듯, 사역자에 의해 선포된 많은 진리의 말씀들도 체에 걸려져, 마치 깃털 같은 우리의 마음을 지나 소실되어 버린다. 묵상은 나무뿌리가 내린 비를 흡수하여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2) 거룩한 묵상은 감정에 활기를 준다.

“내가 주의 법을 어지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시 119:97). 우리의 감정이 천상의 것들에 차가운 이유는 거룩한 묵상의 열기로 그것들을 데우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정은 사랑스런 대상에 대해 사모하는 감정을 주고,

상처 입힌 원수에게는 복수심에 불타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탁월한 아름다움에 대한 묵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태운다.

3) 묵상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묵상은 신적인 진리들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묵상은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든다. 야곱이 양떼들로 하여금 가지를 바라보게 하여 그 가지를 닮은 새끼를 배게 한 것처럼, 우리는 묵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때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 그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4) 묵상은 변화를 가져온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시 119:59). 그러나 사람들이 죄의 혐오스러움에 대해 묵상이나 할까? 그들은 자신들이 죄와 놀아나고 있을 때, 그 죄가 우리를 밧줄에 묶어 영원토록 지옥에 갇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할까? 만약 알았더라면 죄짓기를 단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거룩한 명상을 권면한다. 나는 담대히 말하고 싶다. 만약 사람들이 매일 15분씩 천상의 것들에 대해 묵상한다면, 묵상은 그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행복한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

생각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두뇌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묵상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신자는 마귀에게 조롱거리일 뿐이다. 아무 것도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불가능하다! 시간과 기회를 갖기만 하면 묵상할 주제가 수천가지가 될 것이다. - 찰스 스펔전

11.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대한 묵상

출처: “Fragment: Application on Love to Christ”, in *Jonathan Edwards Sermons*, ed. Wilson H. Kimnach (New Haven, CT: The Jonathan Edwards Center at Yale University, 1722-1723)

저자: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 미국 회중 교회 설교자이며 신학자이다. 미국 커네티컷 주, 이스트 윈저 출생

역자: 정영진

만약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주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타이르며 설득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몇 가지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우선된 큰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이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사랑스러움은 그의 사랑스러운 영광의 광선의 반영일 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는 것 외에 영광스럽고 달콤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은 거의 없다. 우리가 전체를 바라볼 때 하늘과 땅에 광선을 비추는 태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의로운 태양이라 불린다. 그에 비하면 하늘의 태양은 어둠이다. 그는 밝은 새벽별이라 불린다. 마찬가지로 그의 순결함, 달콤한 겸손, 사랑, 그리고 자비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어린 양이라 불린다.

그는 샤론의 장미와 골짜기의 백합으로 불린다. 기쁘고 즐거운 땅인 샤론은 가장 향그러운 장미들을 내고 또한 아름다움, 달콤함, 탁월함 및 유약함에 있어서 다른 모든 백합을 능가하는 골짜기의 백합을 낸다. 그는 보기에 즐겁고 아름다우며 좋은 향기를 내기에 꽃으로 묘사된다. 장미와 백합은 아름다움과 달콤함에 있어서 최고이기에 그는 장미와 백합에 비유된다. 또한 그는 샤론의 꽃과 골짜기의 백합으로 비유된다. 이는 그것들은 모든 장미와 백합 중에 최고이며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복된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장미와 백합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장미와 백합에 비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인가! 이처럼 달콤하고 아름답고 향내가 나니 어떤 종류의 장미와 백합인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속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아름다움이, 매우 신성한 사랑스러움이, 그리고 천상의 향기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분명히 이 사랑스러운 장미와 백합에는 신성의 완전함이 있다. 우주 안의 모든 사랑스러움이 이 장미 안에 담겨있다. 그렇다. 이 백합에는 여호와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다. 이 꽃은 확실히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다. 오, 신자들이여! 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기에 당신을 위한 장미가 있다. 당신은 그 꽃의 향기에 흠뻑 젖게 되고, 당신의 눈은 무한한 아름다움에 기뻐하며,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즐거워하게 된다. 이 장미와 백합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분의 형상이다. 그 꽃은 매우 사랑스럽고 향기로워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이다.

이 무한히 아름다운 장미, 이 흠 없고 향기로운 백합은 한때 악한 사람들의 경멸을 받으며 혐오스러운 침 뱀음까지 받았다. 또한 그들의 격분으로 혈똥음과 찢김을 당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 오 신자들이여!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 위에

부어졌다.

여기 당신의 품에 영원히 놓일 당신을 위한 향기로운 몰약이 있다. 그는 숲의 나무들 사이의 사과나무와 같다. 당신은 큰 기쁨 가운데 그의 그늘아래 앉을 수 있고, 그의 열매는 매우 달콤할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한 엄청난 결과를 그를 사랑하는 동기로 삼아보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탁월하게 만든다. 그 사랑은 변화시키는 속성이 있다. 그를 사랑할 때 그의 사랑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부드럽게 하고 상냥하게 만들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비롭게 만들고, 형제사랑으로 가득하게 한다. 그러므로 뜨겁고 힘차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영혼은 그 사랑에 머물게 되면서 모든 종류의 시기와 악의를 버리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행하게 된다.

그를 향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거룩을 사랑하게 하고 순종을 더하고 죄를 이기게 한다.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인을 위해 일하고 자신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즐거워하게 만든다. 그들은 연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부인한다. 그것은 고통의 힘을 없애고 기쁨으로 바꾼다. 더욱이 천상의 사랑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훨씬 큰 효력을 나타낸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즐겁고 쉽게 만든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희생되더라도, 회개와 죄 죽임을 통해 꿈을 얻어낸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은 이러한 대단한 특성과 성향을 나타낸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구름과 폭풍우와 비와 우박과 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겨울’과 ‘모든 것이 푸르고 아름다운 봄이나 여름’의 차이만큼이나 우리 영혼에 큰 차이를 만든다. 전에는 참으로 귀한 모든 것을 싫어하고 가증스러운 모든 것을 사랑했으나 이제 그 영혼은 변화되어 사랑스럽게 되었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랑은 믿음의 의무를 즐거이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와 죄 죽임을 즐거워하게 하며 어려움을 달게 여기며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는 그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매우 사랑하며, 그들을 매우 사랑해주는 자에게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일들을 얼마나 쉽게 감당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탁월한 효과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함의 유용함이다.

셋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라. 합법한 사랑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삶이다. 증오, 악의, 그리고 복수는 마음의 즐거움을 가장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며 불안감을 준다. 그러나 합당한 사랑이 주관하는 영혼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슬픔에 대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은 다른 모든 방식의 삶보다도 더욱 즐거운 것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그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탁월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더 탁월하고 정련된 사랑은 더 크고 순수한 즐거움을 준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처럼 합당한 사랑은 없다. 어떤 이들은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을 사랑한다. 이는 거짓에 근거한 사랑이다. 어떤 이들은 가장 혐오스러운 것들을 사랑한다. 이러

한 사랑은 진실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는 이치와 기초에서 벗어난 사랑으로서 결국 비참으로 마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함은 진정으로 가장 뛰어나고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견고하고, 실제적이며, 실질적이고, 변함이 없다.

만약 어떤 경건한 사람의 삶이 즐겁지 않다면,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이 작고, 활발하지 않으며 충분한 역동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잠들어 있기에 거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활발하게 행하며 사는 사람은 달콤한 목상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즐겁지 않을 리가 없다.

어떤 사람을 강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완전함과 행동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쁨가운데 주의 영광을 생각하며 큰 즐거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들은 기쁨가운데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무한한 완전하심을 목상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아름다움과 영광을 찾을 때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이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영원토록 새로운 발견할 것이다. 자신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에게서 더 탁월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영혼이 얼마나 황홀하겠는가!

만약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들은 더 대단한 그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들은 새로운 완전함에 이르는 그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가능한 탁월함에 이미 이르렀다는 생각으로 즐거워한다. 그리스도께서 더 탁월해야한다는 욕망을 가질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소유한 탁월함 외에 더 나은 탁월함이나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더 바랄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이란 없으며 오직 그에게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뿐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완벽한 주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얼마나 즐겁겠는가! 이러한 즐거움은 다른 사랑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오직 예수를 사랑함으로 나오는 독특한 즐거움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성(그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의 영원하심과 힘과 지혜 등)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겠는가. 온 마음과 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에게 그리스도는 사람이자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즐겁겠는가! 주님은 너무나 위대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그에게는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저울의 작은 먼지와 같다. 그는 너무나 능력이 크셔서 산과 언덕을 저울에 재시고 작은 물건처럼 섬을 드신다. 그는 천사들이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지혜로우시고 하늘이 깨끗하지 않다고 할 만큼 거룩하시다. 그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해와 달과 별이 그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이며,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를 가장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의 죄 없으심, 낮아지심, 겸손, 온유, 인내, 그리고 자비 등, 그의 인성의 완전함을 생각할 때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큰 달콤함을 느끼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여인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누가복음 11:27)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사랑 표현과 친절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들은 그의 친절을 거듭 생각하면서 큰 즐거움을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늘에서 비하하신 것을 생각할 때 (구유에 누이심, 사람들에게 비난 받으심, 그의 고뇌와 피 흘리심,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그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의 기록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그들을 위해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감격과 즐거움은 어떠하겠는가! 즉,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태어나셨고, 사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다. 이 사실은 반드시 주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대단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태를 묵상할 때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고 고귀하게 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수들을 이기시고, 천국으로 영화롭게 승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대환난 중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낸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어떤 사랑보다 더욱 즐겁다.

- (1)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사랑스러우시다.
- (2)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순수하고, 천상적이고, 신성한’ 그 어떤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그 어떤 사랑도 그러한 신성하고 천상적이며 고귀한 기쁨을 일으킬 수 없다.
- (3)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들이 사랑받는다고 확신한다. 여기에 사랑의 기쁨이 있다. 만약 사랑이 상호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고통이지 즐거움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훨씬 더 고귀하고 깊은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
- (4)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현재의 주님과 교제나 장래의 사랑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종류의 사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움을 빼앗길까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수천가지의 위험들이 있다. 그리고 죽음은 분명히 그들을 분리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며, 세상은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가장 가까이 그들을 안으실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 (5) 그리스도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합은 친밀하다. 그 사귄은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더 친밀하다. 신자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뼈와 살’ 이 되게 할 정도로 사랑하며 받아들이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 됨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없는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랑에도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서의 사귄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것은 없

다.

(6)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사랑은 없으므로, 그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 사랑하는 연인이 풍성한 가운데 서로를 즐거워할 때 사랑은 달콤하다. 그리스도는 이미 영광의 관을 쓰셨다. 그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과 여러 가지 언급된 사실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랑이다.

요약컨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말할 수 없는 달콤함으로 우리 영혼을 채운다. 모든 생각을 사랑으로 달콤하게 하고 모든 묵상을 즐겁게 만든다. 마음에 신성한 평온을 주며, 마리아의 향유옥합 같은 천상의 향을 낸다. 이 사랑은 하늘의 이슬로 영혼을 적시고, 밝은 햇살을 비추며, 영광과 행복을 크게 한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혼에게 미소 짓는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들판과 나무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듯하다. 그런 마음은 지상의 작은 천국과 같다.

★★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그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그의 영광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감격, 경배, 그리고 찬양으로 채우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 존 오웬

12.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즐거움

출처: A sermon delivered on the Lord's Day at New Park Street Chapel, Southwark, on a Thursday evening in the summer of 1858.

저자: 찰스 스펔전: (1834-1892) : 영향력 있던 영국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비돈 출생

역자: 안선형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시 104:34)

신자여! 당신에게 묵상을 격려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이 말씀보다 더 큰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은 없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시 104:34). 기쁘게 여기시는 주체는 누구인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 주체이시다. 여호와를 묵상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우리가 성부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좌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택한 백성을 향한 변함없으신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위대한 창조자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에 있어서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께로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다(참조, 히 6:18). 성부 하나님은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로 인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추수 때에 택하신 구속받은 영혼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기로 맹세하신 분이다. 당신의 관심이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에만 한정되더라도 그 사랑은 당신이 전심으로 영원토록 묵상할 만큼 충분하다.

묵상을 위해 좌절하기로 택하였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도 좋다. 우리의 마음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해보자. 성령님은 범죄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소생시키셨다. 양의 우리를 멀리 벗어나 방황하는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이끄셨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효력있게 우리를 부르셨다. 성령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셨다. 위험에 빠져있을 때 성령께서는 얼마나 자주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날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번번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등불에 거룩한 기름을 공급해주시고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저편에서 깨어날 때까지 우리의 교사이자 인도자이시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구세주의 얼굴을 맞대고 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진리 안에서 당신이 묵상할만한 참으로 무한하고 방대한 대상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쁘게 여기시는 주체의 범위를 나는 흠모할만한 구세주로 한정하고 싶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시 104:34). 아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을 탁월하게 묵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이다.

보배로우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할 만한 대상은 없다. 누가 이 세상을 빚으셨는가? 그 어깨로 우주의 운동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를 생각하라. 그는 천사들이 엮으려 절하는 영광의 왕이시다. 하지만 그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의 몸과 동일한 뼈와 살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성을 갖고 계신다. 겹세마네의 고통과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쓰라림을 견디시고 수난을 당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의 고난의 여정을 그려보라. 가바다(참조, 요 19:13; 빌라도 관정의 뜰)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서 가파른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기까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가보라.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만이 아시는 끔찍한 공포의 죽음을 겪으며 화목제물이 되셨다. 참으로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해 하는 목상으로서 영원토록 기쁘시게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필자 또한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썽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시 45:1)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서 ‘말하리니(inditing)’는 주석 난외주를 보면 샘에서 넘쳐흐른다는 의미로 설명한다.

아하! 예수님을 목상의 주제로 삼아 가만히 좌정하여 그를 생각하라. 우리의 영혼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예수님 한 가지 주제만으로도 목상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나와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생각하라. 성도들은 창세 전부터 계신 어린양과 연합함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실을 기억하라. 지구가 우주 공간에 자리를 잡기 전부터 여호와이신 예수님과 당신의 영원한 연합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죄에 물든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흠이 없이 깨끗하게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기억하라. 엄청난 타락 이후 우리가 회복되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이 전가되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명백하게 알려진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셨고, 어떻게 그분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에서 조화롭게 고동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셨는지, 어떻게 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한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좋았던 날들을 떠올려보자.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였고, 우리는 “제가 사랑하는 분은 제 안에 있습니다”(참조, 아 6:3)라고 대답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참조, 빌 3:10)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예수님처럼 우리 이마에서 고통의 땀방울이 흘러내렸던 시절을 떠올려보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상태에서 비록 핏방울 같은 땀(눅 22:44)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를 기억해 보자. 그 후 이 부분의 주제를 충분히 묵상했다면, 하늘에서 더욱 공고해질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생각하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자’ 이상으로 우리에게 문안하시며 별보다 더 찬란한 금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어주시는 순간을 그려보라. 당신은 당신의 머리에서 그 면류관을 벗어나 예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계단으로 올라가 ‘만유의 주’ 이시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드리게 될 시간을 생각해보라. 아하! 누가 목상의 대상이 없다고 말한다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줄 것이다. “진실로 당신은 목상을 시도하지 않는 군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시편 기자처럼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그가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다음에 구세주께서 이 넓은 세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확실하게 예수님은 언젠가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미 값으로 세상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권능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시며 죄의 효력으로부터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오, 예수님을 이런 관계로 생각해보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 58:12).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가 오시면 이 세상이 여전히 옛 저주, 즉 에덴 동산에 내려졌던 원초적인 저주로 파괴되어 있음을 아실 것이다. 여전히 이곳에 전염병, 역병, 전쟁이 있음도 보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명령하실 것이며(사 2:4) 전쟁과 관련된 지식도 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내리실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 11:9).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신자들이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리는 동안 재림에 대해 묵상하길 바란다. 오, 나의 영혼아, 영광의 그 날을 생각하라! 그날에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며 대적을 보응하러 영광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탄을 결박하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며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주님의 개선행렬을 생각해보라. 그때 주님은 만물의 주권자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롬 9:5).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시 104:34).

필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과 양식이며, 우리의 아름다움이며 영광의 의복이 되실 것이다.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실 것이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다. 그렇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백성들의 천국이다. 천국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다.

★★

새 사람에게도 우리의 ‘오감’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해, 양심, 감정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훈련을 받으며 개발되어야 한다. 영적인 것을 늘 부지런히 생각해야 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선과 악,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얻기 위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한다. - 아더 핑크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이 더 높고 거룩하고 유익할수록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명령을 대항하는 원수와 지옥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두렵고 슬프다. - 나다니엘 래뉴

공부의 목적은 지식이지만 묵상의 목적은 거룩이다. - 토마스 화이트